

‘후후한 교사, 꿈틀거리는 아이들’



가정

하나님께
예배 드립니다.



충일교회 가정예배부

설교

여러분, 혹시 길을 가다가 넘어진 친구를 본 적 있나요? 어떤 사람은 그냥 모른 척 지나가고, 어떤 사람은 “괜찮아?” 하면서 손을 내밀어주죠. 누가 진짜 친구일까요? **바로 멈춰 서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!**

오늘 성경에도 도움이 꼭 필요했던 사람이 등장해요.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몹시 다쳤어요. 너무 아파서 혼자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. 그때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어요. 하지만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. 또 레위인도 와서 보았지만 도와주지 않고 떠났어요. 다들 바쁘다는 이유로 모른 척한 거예요. 그런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.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.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었죠.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멈춰 섰어요. 다친 사람을 상처에 약도 발라주고,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까지 데려가 돌봐주었어요. 그리고 계속 간호해달라며 돈도 맡기고 갔지요.

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이렇게 물으셨어요. “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을까?” 맞아요! 바로 사마리아인이예요. 그는 ‘누가 내 이웃인가?’를 묻지 않았어요. ‘나는 누구에게 이웃이 될 수 있을까?’ 하고 생각하며 행동했어요.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. 힘들어하는 친구를 도와주고, 혼자 있는 친구에게 먼저 말 걸고, 가족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‘이웃이 되어 주는 사람’이 되는 거예요. 우리도 오늘 이렇게 고백해요! “어디서나 이웃이 되어주는 어린이가 될래요!”

예배 순서

사 도 신 경 다 같 이

찬 송 예배하는 시간 속에 다 같 이

말 씬 봉 독 누가복음 10:25~37절 다 같 이

설 교 누가 진짜 이웃일까요? 설 교 자

말 씬 나 눔 다 같 이

합 심 기 도 다 같 이

축 복 기 도 부모가 자녀에게
자녀가 부모에게

주 기 도 문 다 같 이

★ 찬송과 축복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

★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.

충일교회 가정예배부

찬 양

예배하는 시간 속에



▶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

공동기도문

사랑의 하나님,

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이웃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.

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용기 내서 다가가게 하시고,

예수님처럼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.

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말씀나눔

1. 오늘 이야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, 사마리아인은 각각 어떻게 행동했나요?
2. 이번 주에 나도 '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일'은 무엇이 있을까요?